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생명 있는 몸은 강하다. 심각한 훼손이나 상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며 자신을 유지해 가는 생명의 힘은 강인하다. 그러나 또한 허망할 정도로 쉽게 무너지는 생명이다. 말쑥히 들어와 자고 나서 아침 출근길에 나서다가 픽 쓰러져 저승길 올라서는 것이 몸이며 생명. 생명은 충격이나 변화를 소화해 내며 생존이나 건강에 필요한 균형 상태를 복원해 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타고난 신체 조건, 환경, 자기 관리와 정신력, 마음 씀씀이 등에 따라 이 능력의 정도가 달라질 터. 이 균형 복원력이 강할수록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명은 질기고 강하지만, 일단 그 범위를 넘게 되면 한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다. 돌연사는 그런 현상이다. 40대 이후 성비(性比)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일한 경우가 한국이 아니라, 남성 생명의 균형 복원력을 넘어서는 이런 저런 압박이 넘쳐나는 곳이 한국 사회인 셈이다.

균형이 깨지는 현상을 건강 상실

자제력을 발휘하였다. 그 때는 너무나 그루를 베고 땅 한 평을 헤집을 때에도 꺼리고 조심스러워 했다. 농업사회의 인간에게는 그렇게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생태론적 직관이 본능적으로 꿈틀거렸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에서도 신성(神性)을 느끼려는 범신론도 어쩌면 이 생태론적 지혜의 한 형태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문명의 어느 시기, 인간은 이 생태론적 감수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로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흥미롭게도 두 문명권에서 거의 동시에 두 빛나는 영성이 등장하여 인간의 이 과도한 자기 주장의 미혹과 재앙을 설교한다. 인도문명에서는 부처님이 자아에 대한 근본 무지와 그 후유증(後遺)을 논한 지 수 십년 된 불자나, 초심자나 '보시' 하면 사찰의 건물들 새 위(有爲)라는 말로 비판하였다. 이 두 영성은 무지로 인한 인간의 과도한 자기 주장이 인간과 세상에 어떠한 병폐를 초래할 지에 대해 심오한 통찰을 밝힌다.

무아와 생태적 감수성

이라 한다면, 몸 구성 요소 중 일부의 과도한 자기 주장이 그 균형 파괴의 한 내적(內的) 원인이다. 몸의 다른 부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과도하게 움직임을 탐하면 건강이 망가진다. 다른 기관들을 배려하지 않는 허(虛)의 과도한 자기 주장이 건강 유지에 필요한 균형을 깨뜨려 버린 것이다. 암이란 것도 암세포의 과도한 자기 주장 현상이 아니던가. 모든 구성 부분들이 훌륭히 얽힌 상호 의존적 관계가 몸. 그러나 각 부분은 여타 부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이나 기능에 그칠 수 있어야 전체 시스템의 건강이 유지된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과도한 자기 주장에 몰두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망가진다. 이런 관점은 생태론적 세계관과 통한다.

지구 생명체 가운데서 유독 인간만이 끝 모를 자아 의식을 발전시킨다. 이 유별난 자아 의식은 생명 성숙의 자기 자각 일 수도 있고, 생명 왜곡과 파탄으로 나아가는 지나친 자기 주장 일 수도 있다.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활발할 때, 인간은 지구환경 전체의 건강을 배려하는 행위에 그칠 수 있는 본능적

과도한 자기주장 전체 시스템 훼손

문명과 문화의 이름으로 인간은 과도한 자기 주장을 급속하게 강화시켜 왔다. 인간의 이 과도한 자기 주장은 급기야 지구 환경 시스템 전체의 건강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균형 파괴의 일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듯 하다. '생태계의 위기'라 불리는 이 시스템 건강 파괴 상황에서 탈출하는 길은 결국 '과도한 자기 주장의 절제' 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자아 이해인 무아(無我)의 지혜야 자아 관념의 짙긴 밧에서 해방되어 마비된 생태론적 직관과 감수성이 부활할 터.

새만금 간척사업이 결국 강행되는가 보다. 지구 건강의 균형 유지력을 훼손하는 또 하나의 파괴적 자기 주장이 될까 걱정들이 태산이다. 개발이라는 미명의 자기 확장 속에 도사린 미혹과 재앙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집착없는 보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

참불자의 길 보시

"대웅전을 새로 짓는데 보시하세요." "기와불사를 하는데 보시하세요." 사찰에 가면 흔히 받는 권유다. 보시에 대한 공덕이나 의미에 대해선 일체 설명하지 않고 돈만 내라는 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작 보시할 생각이 있는 사람도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지난 일요일 경기도 남양주군의 한 사찰에서 만난 불자는 "기와불사를 하면 복 많이 받는다며 얼마나 소매를 붙잡고 뇌주지 않는지 할 수 없이 기와불사를 했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교와 인연 맺은 지 수 십년 된 불자나, 초심자나 '보시' 하면 사찰의 건물들 새로 짓거나 보수 그리고 절에 돈을 내는 행위만을 떠올린다.

그렇다고 이것이 보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보시의 의미와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제비심으로써 다른 이에

게 조건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를 권하고 있다. 결국 보시는 집착 없는 마음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부분 보시는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불자들의 의식을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례가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적는 기와, 범종, 불보살상 조성 등의 불사다. 특히 삼천불, 1만불 조성 불사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풍토가 만연하다 보니 일부 불자의 경우 '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보시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돈을 내는 행위를 보시의 전부로 여기는 풍토가 문제다.

포항 대성사 주지 운봉 스님은 "보시는 지혜와 자비의 표현으로서 보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바라는 바가 없어야 하며 조건도 없어야 한다"며 "질퍽한 보시

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스님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보시는 사찰에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법문, 상담 등 불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것도 보시"라고 덧붙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시' 하면 불자들만이 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스님들이 독경



자비심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보시는 참불자의 길을 가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며 또한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주변을 눈여겨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보시행을 펼치는 불자들도 많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합장주비(合掌 주비), 쌀, 약, 김장, 이불, 떡, 과일 등 다양하다. 심지어 군장병자들을 위해 '차 한잔 나누기 캠페인'을 벌여 보시하는 불자들도 있다. 또한 사찰의 행사를 돕는 것도 보시요.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보시이며, 법률상담, 의료 서비스 등 자신의 전문직을 살려 봉사하는 것도 보시다. 사찰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줌, 목마른 이에게 물 한잔 주는 것도 보시다.

제시(財施)·법시(法施)·무외시(無畏施) 등 남을 위해 베푸는 보시는 참불자의 길을 가는 수행의 첫 걸음인 셈이다. 사설법과 육바라밀의 첫째 덕목이 보시인 까닭은 보시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행이기 때문이다. 김중근 기자



'서장' 통한 선 공부 ①

진소경에 대한 답서(2)

취하고 버리는 분별떠나 있는 그대로

"묵조선(默照禪)을 설하는 사된 스승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고 쉬고 또 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쉬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의도와 이승의 선적단견(禪寂斷見)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어떻게 자기 마음의 맑고 묘한 작용과 완전한 안락과 있는 그대로가 청정한 해탈이 되는 묘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자연히 옛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옛 사람의 말을 휘둘러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마니(摩尼) 구슬이 진흙탕 속에 아무리 오래 놓여 있더라도 때가 낄 수 없는 것은 그 바탕이 본래 깨끗한 때문입니다. 이 마음도 그와 같아서 어리석은 때에는

타끌 경계에 미혹되지만, 이 마음의 바탕은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듯이 본래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득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은 본래 부처로서 완전히 자재하며 있는 그대로 안락하며 온갖 묘한 작용들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보통 참선한다고 하면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앉아 있거나, 사람들과 동떨어진 토굴에서 홀로 자기만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일로 여기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참선(參禪)이라는 말이 선(禪)에 참여(參與)한다거나 선을 참구(參究)한다는 뜻이 특별히 참여하거나 참구할 대상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여기기가 쉽다. 함정은 바로 이러한 견해에 있다. 그리하여 참선이라는 특

별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선방(禪房)이나 토굴이라는 외딴 장소를 찾는다면, 특수하게 설계된 집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활하여야 참선이라는 특별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을 보통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분별심(分別心)의 소산으로서 이분법(二法)에 떨어진 것이다.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佛法)은 곧 불이법(不二法)이라고 한다. 선이란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선(禪)을 따로 추구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수능엄경>에 나오는 아주나뭇타 장자처럼 제 머리가 없다고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것이다. 밖으로는 아무리 찾

아도 따로 찾을 수가 없지만,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찾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찾을 일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참선을 한답시고 조용한 장소에 묵묵히 앉아 아무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쉬고 또 쉬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묵조선은, 아주 나뭇타의 추구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아무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쉬고 또 쉬자'라는 그 생각이 바로 마음이 스스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짓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선을 고요함이라고 여기고 생각을 끊어야 하고 고요함이 달성된다고 하는 선적단견(禪寂斷見)의 어리석음이라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 10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땅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가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농」 성분은 대량

다
세사미농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체적 작용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 료
총판 법 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양협참은 직접 음식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구중구로 (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 (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규격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 (전화 053-655-3027) 최 청정선 올림